

# 인간과 자연의 공생 · 공영을 위한 생태학적 세계관

‘진정한 인간 시대’의 도래를 위하여



이영수

경기대 교수(교육학) · ‘교수신문’ 발행인

내 가 대학 이외에 몸담고 있는 교수신문사는 경희궁 뒤뜰에 인접해 있다. 높고 우람한 빌딩 숲 사이에서 그것은 작은 녹지 하나를 형성하고 있는 모양이지만, 역설적이게도 이 도시 속의 ‘섬’은 ‘주변환경’과 전혀 어울리지 못한다. 성장의 물결을 타고 우후죽순 들어선 빌딩과 고가도로들에서는 자연과의 조화를 전혀 느낄 수 없는 까닭이다. 그러나 서울 시내 한복판에서 비록 만족할 수 없는 수준이기는 하지만 이러한 자연을 늘 곁에 두고 있음을 행운으로 여긴다면, 적어도 나는 그 지정학적인 이점을 상당부분 누리고 있는 셈이다.

신문사에서 책을 읽고 글을 쓰다 내다보는 경희궁 뒤뜰의 고즈넉함은, 문자에 중독된 내 눈을 씻어주고 많은 사색과 위안을 던져준다. 특히 정기적으로 이곳을 산책하는 인근 노부부의 모습은 ‘인간적 사랑’이라는, 이제는 먼지 묻어 시류에 맞지도 않는 가치들을 되새기게 하기도 한다. 때로는 어린아이들의 놀이 장소로, 때로는 젊은 연인들의 데이트 코스로 이용되기도 하는 이 곳은, 문명에 지친 도시인들에게 활력을 제공하는 마지막 보루인 것이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가 나는 이상한 풍경 하나를 목도하게 되었는데, 그것은 점심시간에 잠깐 다녀가는 일명 ‘넥타이 부대’들의 행렬이었다. 식사 후 단체로 산책길에 오른 듯한 그들의 모습은, 내게 있어서는 참으로 낯설고 기이한 것이 아닐 수 없었다. 그들은 마치 경쟁이라도 하듯 1백미터에 달하는 그 산책로를 쟁점으로 몇 번씩 왕복하고 있는 것이었다. 이러한 모습은 어느 한두 그룹의 예가 아니라, 점

심시간에 다녀가는 모든 이들의 일관된 행태이기도 하다. 그런데 나는 그 광경을 보면서 어느 순간 씩씩한 미소를 짓지 않을 수 없었다. 느긋하게 걸으며 담소를 나누고 사색하는 것이 아니라, 경기에 임하는 운동선수마냥 속도전을 펼치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보행의 과정에는 ‘사유’가 투입하는 것이기에 산책에서는 몸과 정신, 나아가 자연과 자아가 하나가 되는 경지를 맛보아야 할 터인데, 그들의 대열에서는 자연 안에서 나를 찾고 나를 성찰함으로써 자연을 재발견하려는 지혜는 전혀 찾아볼 수 없었던 것이다. 물론 업무 시작 시간 전에 마쳐야 한다는 강박감이 작용한 것이겠지만, 그들은 자연과 어울리는 방법을 전혀 터득하지 못하고 있는 듯했다. 그래서 그들의 움직임은, 그저 만성적 운동부족을 메우기 위한 하나의 방편으로밖에 비춰지지 않는다. 만약 그러하다면 그 산책길이 굳이 고궁일 이유가 없는 것이다.

서두에 굳이 이런 에피소드 하나를 끼집어 내는 이유는, 직장인들의 그 대열에서 우리의 서글픈 ‘근대’와 ‘근대정신’을 보았기 때문이다. ‘초고속성장’이 낳은 우리의 일그러진 근대화의 모습과 그것은 놀라우리만치 닮은 꼴을 하고 있다. 또한 ‘근대’라는 단어가 인류의 ‘진보’라는 낱말로 대치될 수 있다면, 인류가 달려온 숨가쁜 진보의 길 한 편에는 자연과 인간의 분리라는, 그 부박하고 황폐한 정신이 높여 있었던 것이다. 이것이 바로 현대문명이 신봉해 왔던 ‘근대정신’이다.

베이컨과 데카르트에 의해 본격적으로 표현된 진

보에 대한 신념은 18세기 계몽주의자들에 의해 뒷받침되면서 근대 산업사회의 이념으로 구체화된다. 19세기의 사상가들, 예컨대 마르크스, 존 스튜어트 밀, 콩트 등은 지난 세기의 믿음을 '과학과 방법의 정신'이라는 창을 통해 더욱 심화시켰던 것이다. 따라서 자연은 인간에게 있어 과학문명의 신화를 실현시킬 장이자, 정복과 개발의 대상으로 인식된다. 그러나 이러한 결과는 인류사에 비극적으로 출현해, 이제 거의 막바지 단계에 이르고 있는 듯하다. 양차 세계대전, 도덕의 타락과 인간성의 상실, 아직도 지구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는 민족분쟁, 기아, 빈곤, 그리고 산업문명의 성장에 따른 환경 파괴. 마침내 인류는 유전자를 조작해 식품을 만들고 인간마저 복제하는 충격적 상황까지 목도하게 된 것이다. 그런데 '위기가 기회'라는 일반 명제는 혹 우리가 이제야말로 발상의 전환과 새로운 모색을 해야함을 의미하는 것은 아닐까.

인간은 분명 생태계의 일부분을 떠나서는 존재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근대 이성과 과학 문명이 범한 오류는 인간을 생태계에서 소외시켜 인식해왔다는 사실이다. 인간은 자연을 개발하고 관리하며 서서히 생태계의 범주에서 스스로 떨어져 갔던 것이다. 이 대목에서 미국 시몬스대학의 연구원이자 환경문제 전문가로 널리 알려진 클라이브 폰팅의 전언은 시사하는 바가 많다. 그는 이렇게 말하고 있다. "근 20년 가까이 '환경' 주제를 지지해온 나는 '녹색' 주제가 단순한 자연세계의 상태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자원과 에너지의 사용, 빈부의 격차, 사람들이 어떻게 다른 사람들을 대하는가의 문제, 그리고 그들이 살고 있는 세계에 대한 사람들의 사고방식의 문제라고 확신하게 되었다."<sup>1)</sup> 결국 폰팅이 전하고자 하는 궁극적인 메시지는, 초고속 성장이 일궈놓은 현대 문명의 뒤편에는 인간의 맹목적 개발논리가 숨어 있으며, 문명을 향한 인류 역사가 자신들을 위해 얼마나 많은 '파괴'를 일삼아왔는가라는 사실이다. 그가 '진보의 역사 뒤에 숨겨진 파괴의 역사'라

는 섬뜩한 부제를 달아놓은 것도, '성장' 신화에 물들은 인류에게 경종을 울리기 위함이다. 따라서 현재의 환경 위기는, 자연환경의 파괴라는 단편적 현상보다는 그 이면에 놓여있는 '인간 사회와 인간 정신의 총체적 위기'라는 대방점이 짝혀야 할 것이다.

또한 1972년의 '유엔인간환경선언'과 1992년의 '리우환경선언' 이후, 환경문제가 범지구 차원의 문제로 대두하면서 각종 국제환경협약이 체결되고 있음에도 그다지 울림을 안겨주지 못하는 것은, 이러한 제 선언들이 여전히 개발논리의 한계를 벗어나지 못한다는 사실이다.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의 원칙'을 채택한 '리우환경선언'의 경우, 이 원칙을 "미래 세대가 그들의 필요를 충족시킬 능력을 저해하지 않으면서 현 세대의 필요를 충족시키는 것"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러한 절충 논리가 과연 환경 복원의 근본적인 대안이 될 수 있는가 하는 점이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경우, "중중 거론되는 경제와 환경의 조화나, 지속가능한 개발과 같은 논리는 정치적 수사이거나 아니면 생태적 위기의 도래를 어느 정도 지연시키는 정도에 그치"<sup>2)</sup>는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제기되어야 하는 근본적인 물음은 현대 과학기술과 '지속가능한 개발'의 적실성을 묻는 것이기 이전에, 환경파괴에 대한 인간의 도덕적 책임과 그를 반성하는 성찰적 자세이다. 그러기에 현재의 환경 위기에 대한 책임은, 어쩌면 '과학지식'의 발전과 그에 터한 '개발' 그 자체에 잘못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인간중심적 관점에서 과학기술을 선택하고 활용한 인류의 탐욕에 원죄가 있는 것일 지도 모른다. 자연은 누구에 의해 나락으로 떨어져 갔는가. 재언한다면, 그에 대한 해답은 우리 자신의 반환경적이고 반생태적인 삶의 양식에 대한 반성에서부터 비롯되어야 하는 것이다.

다행히 요즘 이러한 각성이 전 사회적으로 확산돼 '환경'이라는 개념은 이제 우리 시대에서 빼놓을 수 없는 화두가 되고 있다. '생태주의'는 21세기 대안

1. 클라이브 폰팅 지음, 이진아 옮김, 『녹색세계사 1』, 심지 권, 1995

2. 임흥빈, 「기술의 관점에서 본 자연의 위기」, 『굿모닝 밀레니엄』, 민음사 권, 1999

사상으로 떠오르고 있고, 학계에서도 '생태학'은 학제를 가로지르는 주 관심 분야로 각광받고 있다. 개발이라는 신화가 오히려 인류의 절멸을 가져올 수 있다는 위기의식은, 역설적이게도 자연과의 친화와 생태주의라는 논의들을 불러일으켰던 것이다. 이 세기말의 덕목은, 물론 자본주의로 대변되는 근대의 반작용이기도 하다.

21세기 근대 과학이 낳은 고속 성장에 브레이크를 거는 시도는 여러 가지 형태로 나타난다. 그리스의 오랜 철학적 전통, 즉 이성중심주의, 남근중심주의, 시각중심주의가 의심받고, 르네상스의 주요 미덕이라 할 수 있는 인본주의, 즉 인간중심주의의 그늘을 전면적으로 해부하려는 시도가 바로 그것이다. 그러기에 열기처럼 불어닥쳤던 포스트모더니즘에 대한 관심도 이러한 맥락 안에 놓인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지형을 살펴볼 때, 정치철학자 정화열 모라비언대 교수가 주창하는 '깊은 생태학'(deep ecology)<sup>3)</sup>은 큰 울림을 준다. 그의 말에 의하면, '깊은 생태학'은 기본적으로 '탈근대적 고안물'이며, 탈근대를 위한 조건으로서 '근대성의 해체 작업'은 필수불가결하다. 따라서 그가 해체하고자 하는 구체적 대상은 데카르트의 합리주의, 베이컨의 도구주의, 로크의 경제주의였다. '깊은 생태학'으로서 '환경사랑'(ecopiety=인간사랑+땅사랑)과 타자에 대한 '보살핌의 윤리'라는 명제가 그리 낯설게 들리지 않는 것은, 이러한 사유들이 현재의 환경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대안, 즉 '생태학적 세계관'과 맞닿아 있기 때문이다. 새로운 시대는 새로운 사유를 발판으로 도래하고, 새로운 사유는 새로운 세계관과 윤리관을 필요로 한다. "지구와 인간이 다 함께 총체적인 위기 상태에 처해 있다. 세계 역사가 자연의 문제로 되고, 세계의 자연이 역사의 문제로 되고 있다. 이것은 철학에 있어서 전혀 새로운 일이다"<sup>4)</sup> 라는 언

명과, "우리가 계속 같은 언어로 말을 한다면 우리는 같은 역사를 재생산하게 될 것"<sup>5)</sup>이라는 경고는 이러한 문제의식을 수용한 것이다.

환경과 자연 상태의 훼손으로부터 탈출구를 모색하는 작업에 철학적 사유가 보태진 경우는 여러 곳에서 찾을 수 있지만, 여러 실천이나 대안 담론에서 가장 눈여겨볼 만한 것은, '몸'에 대한 담론이다. 정화열 교수 뿐 아니라 전세계의 지성들이 '몸'을 주목하는 이유는, '몸'이라는 기호가 근대의 그늘인 억압과 차별을 해체하는 상징어로 작용한다는 믿음 때문이다. 이른바 '몸의 정치학'이라는 꼬리표를 달고 있는 몸 담론에서, 합리적 이성보다는 심미적 감성이, 자유보다는 '책임의 윤리'가, 시각(구경)보다는 '축각(참여)의 이미지'가, 남성적 사고보다는 '여성적 사고'가, 서양보다는 '동양적 사유'에 근접한 '배려와 보살핌의 윤리'가 부각되는 것은, 이러한 윤리들이 생태철학에 입각한 수평적 사고를 낳는 까닭이다. 그러므로 오늘날 생태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척도나 처방은, 바로 '탈근대적 윤리'로서 생태철학'이라는 새로운 모색으로 거듭 담해질 수 있는 것이다. 그 핵심은 당연히 인간중심적 형이상학에 기초한 기존 제도의 전복과 과학적 패러다임의 제도 수정에 놓인다.

그런데 이것은 자연의 아름다움을 강조하는 '미학적 생태주의'나 단순한 정책 차원의 자연보호를 경계한다는 사실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이는 "자칫 유한 계층의 낭만주의적 자연 취향으로 오해 받을 수 있"<sup>6)</sup>으며, 인간과 자연에 대한 관계 설정과 근본적인 성찰은 배제돼 있기 때문이다.

미래의 환경 담론은 확실히 자연친화적인 생태학적 감성을 요구하고 있다. 그것은 자아에서 '타자중심적 사고'로의 전환과 이성에서 '감성적 패러다임'을 일컫는 것이다. 인류가 겨안고 있는 21세기말의 낡은 사상, 인간의 진화가 무한대로 이어질 수 있다

3. 정화열, 「생태철학과 보살핌의 윤리」, 『녹색평론』29호(1997년 7-8월) 참고

4. 미셸 세르, 같은 책에서 재인용

5. 루스 이리가레이, 같은 책에서 재인용

6. 임흥빈, 같은 책

는 과학적 신념에 마침표를 찍을 수 있는 생각이 전 지구적으로 확대될 때”, 우리는 근대 사회의 성장에 제동을 가하고 앤소니 기든스를 비롯한 유럽 지성들이 주창하는 ‘제2의 근대’ 즉, ‘성찰적 근대화’를 이룰 수 있을 것이다.

인류 역사의 발전 단계를 신앙시대, 이성시대, 과학시대, 인간의 시대라 구분짓는 헤안을 보인 학자가 있다. 2000년, 새로운 천 년을 맞이하는 시대는 분명 인간에 대한 신뢰와 애정 그리고 열정으로 전개되는 인간의 시대가 열릴 것이고 우리는 이를 위한 준비를 게을리해서는 안될 것이다. 환경 보전과 녹색 윤리는 바로 ‘휴머니즘 이기 때문이다. 성장과 개발을 체일로 내세웠기 때문에 그 이외의 것들은 부차적인 것으로 치부되는 사회. 그러나 ‘인간애’라는 원초적인 휴머니티를 생태계로 확대한다면 어느 정도 그 시야는 보인다. 자연과의 맞대면이 아닌 자연과 상생하는 생태학적 지혜를 체화해 나갈 때, 인류는 어머니 지구의 품으로 되돌아 갈 수 있으며, ‘녹색 윤리’는 실현될 수 있다.

새로운 세기를 알리는 인류의 시계는 과연 어디로 향할 것인가. 그 시침이 근대가 극점에 다다른 지금 현재에서 멈출 것인지, 근대를 넘어서는 새로운 근대로 진행할 수 있을지 예견하는 것은, 미래의 생태학적 전망을 타진해 보는 것이기에, 새로운 시대의 출현은 인류에게 보다 깊은 성찰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환경 보전을 넘어선 환경에의 믿음, 환경에 대한 사랑, 환경을 위한 열정을 환경주의와 진정한 휴머니즘의 정신으로 인간의 시대를 준비하여야 할 것이다.” **環境保全**

**약 력**

서울대 교육학과 및 동 대학원 졸업  
미국 인디애나 대학 수학  
단국대 박사과정수료  
현 경기대 교육학 교수  
교육신문 및 열린지성(계간) 발행인

7. 이것은 현재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경제·기술적 관점에서의 세계화’가 아니라 ‘철학적 관점에서의 세계화’라는 점에서 의미 깊다.

**새 가 족**

협회 회원 가입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저희 협회는 여러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5층 회원	업 체 명	주 소	대표자	업 체 명	주 소	대표자
	전남순천시 별당면 구룡리 '72		박동영	보림산업㈜	양주군 광천면 가림리 44-3	노사홍
	시흥시 자곡2동 덕산역천리		김홍순	성복상업	영주군 호초읍 도개리 423-7	공상수
	성안향은주조합사	전남광양시 태인동 '657	윤근중	한철산업	파주시 탄현면 축현리 '53-1	변동영
	대리신씨	시흥시 정왕동 시흥2동-72	유정근	선일산업	시흥시 정왕동 시흥 2동-04	조영환
	현대기공㈜	시흥시 정왕동 시흥2동22동	송재인	중흥고무기기공업(주)	시흥시 정왕동 시흥 1동-04-02	김신원
	다주정목회(교회)	시흥시 정왕동 시흥1리-10	임복환	삼자중장기(주)	군포시 당동동 330-3	이종산
	취임보개발상사	인산시 성곡동 시흥5마82동-1	정영득	동아정	시흥시 정왕동 40-504	송영목
	남서울자동차정비	인산시 사동 '49-8	김동경	금강화학	시흥시 정왕동 시흥 1동-602	박종수
	우정기공업	시흥시 정왕동 시흥1-1406	이종만	이씨(주)	인산시 성곡동 633-5	조희수
	황철중: 황철중비료(주)	인산시 성곡동 시흥4리403	채현선	지성화학공업(주)	고양시 덕양구 원흥동 '2-28	김민수
	웅진기공업	양주군 화도읍 덕장리 214-5	송석환	월드와이드기술(주)	파주시 법원면 가리리 358-3	전호재
	이철금역(주)	시흥시 정왕동 시흥3동-32	신재환	지흥화학공업(주)	보령주서 호도읍 가곡리222-20	이철환
	유도철과기(주)	성남시 중원구 상곡동 353-31	이홍수	㈜TS공업	양주군 광천면 우곡리 '63-4	이무상
	비인연미상사	성남시 중원구 상곡동 206-4	박영환	가림산업사	김포시 통진면 수삼리 '63-6	김지홍
	남강금속	인산시 묵산동 434	윤덕환	㈜대우	포천군 신북면 신광리 93-30	정승근
	세계전자	인산시 성곡동 632-8	김정근	㈜서한	파주시 조리면 우산리 394	이영영
	호성정밀(주)	인산시 성곡동 659-6	최영환	등산기공업	화성시 정남면 대갈리 380-1	김성태
	다동요업	화성시 향남면 동오리 89-4	홍순희	고성산스퀘어	인산시 묵산동 781-1	김영대
	한국화학공업(주)	웅천시 공곡동 722-2	한민치	디젤투수산업	부천시 오정동 내동 66	김두스
	동국전자	웅천시 포곡면 삼계리 538-1	김호선	보성중장기(주) 공장	인산시 묵산동 73-2	임도수
	기동물리신택	시흥시 정왕동 시흥1리422	노경호	지성화학	양주군 남면 상수로 40	송종호
	중원전자공업(주)	인산시 묵산동 727-9	조문진	홍은공업사	웅천시 가림동 구갈리 55-1	공인철
	법일당(주)	파주시 파주읍 파주리 292-4	정병기	서화양행	양주군 오곡면 시흥리 379-4	이성우